

CNI세미나 2019-078

2019년 제6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마을 후계자와 귀농·귀촌·귀향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2019. 8. 30(금) 오후 2시~6시

금산군 진산면 행복누리센터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322 (읍내리 397-3)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목 차 CONTENTS

제6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마을 후계자와 귀농·귀촌·귀향 :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개 요	01
-----	----

추진 목적 및 프로그램 일정표

〈1부〉 주제발표

“농촌마을 후계자 :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09
------------------------------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귀농과 후계”	17
----------	----

이진천 상임대표(전국귀농운동본부)

〈2부〉 사례발표

“귀농·귀촌 마을살이, 나는 마을 후계자인가?”	27
----------------------------	----

조용준 대표(조이딸기농장, 금산군 귀농4년차)

〈3부〉 종합 토론

‘마을 후계자 :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35
---------------------------	----

진행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정토론자 : 권용안 회장(금산군 귀농귀촌협의회)

전창호 전(前) 이장(금산군 남이면 역평1리)

2019년 제6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금산)

- “마을 후계자와 귀농·귀촌·귀향 :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

“마을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외부로 열린 세계였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마을은 그 구성원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에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원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5 전국 마을선언 초안, 제6절)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논하자면 무엇보다 마을을 이어갈 후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후계자가 있고 없음이 그 마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환경과 농업여건이 좋더라도, 정부에 산이 많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동력이자 미래를 설계할 후계자가 없다면 오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6년(서천), 2017년(예산) 대화마당에서 귀농·귀촌·귀향을 중심으로 10대 쟁점을 제시하고 토론하여 정리한 바 있고, 쟁점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을정책과 귀농귀촌정책, 청년정책 등 관련 정책들이 ‘칸막이’ 속에서 서로 충돌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6회 대화마당에서는 “마을후계자와 귀농·귀촌·귀향 :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와 사례발표, 쟁점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꿈꾸며 마을 후계자를 양성하는 과정의 다양한 경로나 관점 차이를 확인하고, 또 공통된 미래지향적 대안도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체류형 귀농교육센터가 위치한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마을 주체들(귀농·귀촌·귀향,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에 주목하여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이어갈 후계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 시 : 2019. 08. 30.(금) 14:00 ~ 18:00

○ 장 소 : 진산면 행복누리센터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322)

○ 주 최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후 원 : 충남도청, 금산군청

○ 참석대상 : 열정이 있고 공부하려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

○ 참가문의 : 정석호 팀장(041-429-0007, sockhoj@gmail.com)

○ 관련 사이트 : 홈페이지(www.cnmaeul.net), 네이버 밴드(충남 마을넷)

※ 충남 센터에서 발간하는 『마을독본』 (6호) 특집주제를 읽고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세부 프로그램

사회: 정석호 팀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간	진행내용	비고
~14:00	•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4:00 ~14:30	• 대화마당 취지 및 주제 소개 (구자인 센터장) • 참가자 자기소개 (전원)	
14:30 ~15:30 (60분)	〈1부〉 주제발표 1. “농촌마을 후계자 :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구자인 센터장(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 주제발표 “귀농과 후계” - 이진천 상임대표(전국귀농운동본부) 3. 사례발표 “귀농·귀촌 마을살이, 나는 마을 후계자인가?” - 조용준 대표(조이딸기농장, 금산군 귀농4년차)	15분 30분 15분
16:00 ~16:20	• 휴식 및 교류시간	
16:20 ~17:50 (90분)	〈2부〉 종합토론 “마을 후계자 :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 진행 : 구자인 센터장 • 지정토론 : 권용안 회장(금산군 귀농귀촌협의회) 전창호 前 이장(금산군 남이면 역평1리) • 주요 쟁점과 토론과제 - 농촌 마을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 마을 내부에서 발굴/양성하는 것은 가능한가? - 귀농·귀촌·귀향인이 마을 후계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 농촌마을정책에서 청년후계자의 등장과 성장을 돕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책적·제도적·실천적 환경 등) -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질의응답 포함
17:50 ~18:00	• 광고 및 정리 : 차기 일정 등 홍보	
18:00 ~19:00	• 저녁식사와 교류회 - 장소 : 금산군 금산月장	

※ [참고] 월별 운영계획

회차	일시	주요 내용, 주관/협력 기관	비고
1차 (종합)	3.29	· 종합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워크숍
2차	4.26	· 예산군 :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 쟁 점 : 농촌마을과 양성평등	
3차	5.31	· 천안시 :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쟁 점 : 청년과 마을공동체농업의 연계 방안 (현실과 과제)	(마을독본 3호) 마을공동체농업
4차	6.28	· 서천군 :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 점 :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복지 구축 방안	(마을독본 4호) 마을공동체복지
5차	7.26	· 청양군 :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 점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학교와 마을은 어떻게 만날까?)	(마을독본 5호) 마을교육공동체
6차	8.30	· 금산군 :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 점 : 귀향·귀농·귀촌과 마을 발전 방안	(마을독본 6호) 마을후계자
7차	10.25	· 논산시 : 논산시청 마을자치팀 · 쟁 점 : 읍면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 연계 방안	(마을독본 7호) 읍면과 행정리
8차 (종합)	11.29	· 종합토론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 점 : 시군 지원센터 활동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 개최 장소는 마을 현장(권역 센터) 혹은 시군 지원센터를 원칙으로 함

* 향후 상황에 따라 개최 시군 및 시기, 주제(쟁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부】 주제발표

| 주제발표 |

“농촌마을 후계자 :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촌마을후계자,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19년 제6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마을 후계자와
귀농·귀촌·귀향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2019. 8. 30(금) 오후 2시~6시
금산군 진산면 행복누리센터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운산로 322 (금내리 397-3)

주최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후원
충남도청, 금산군청

참석대상
영향이 있고 공부하려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

문의
충남연구원
장석호 팀장
041-429-0007
sockho@gmail.com

관련정보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블로그
www.crnai.net
네이버밴드 충남마을만들기
band.us/crnai

내부, 주제발표

1. 농촌마을 후계자: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구자인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2. 귀농과 후계
— 이진환 전국귀농운동본부 상임대표
3. 사례발표:
귀농귀촌 마을살이,
나는 마을 후계자인가?
— 조현준 조이 알기농장 대표, 금산군 귀농 4년차

2부, 종합토론
“마을 후계자: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 진행: 구자인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자료토론: 김광민 금산군 귀농귀촌팀을 담당
— 진행로: 금산군 남이면 역화리 전농 이장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마을책보」, 6호의 특집주제
“마을의 후계자: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를 읽고 참여여부를 권장합니다.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귀농귀촌, 마을과 더불어 가는 길”
“귀농귀촌을 둘러싼 10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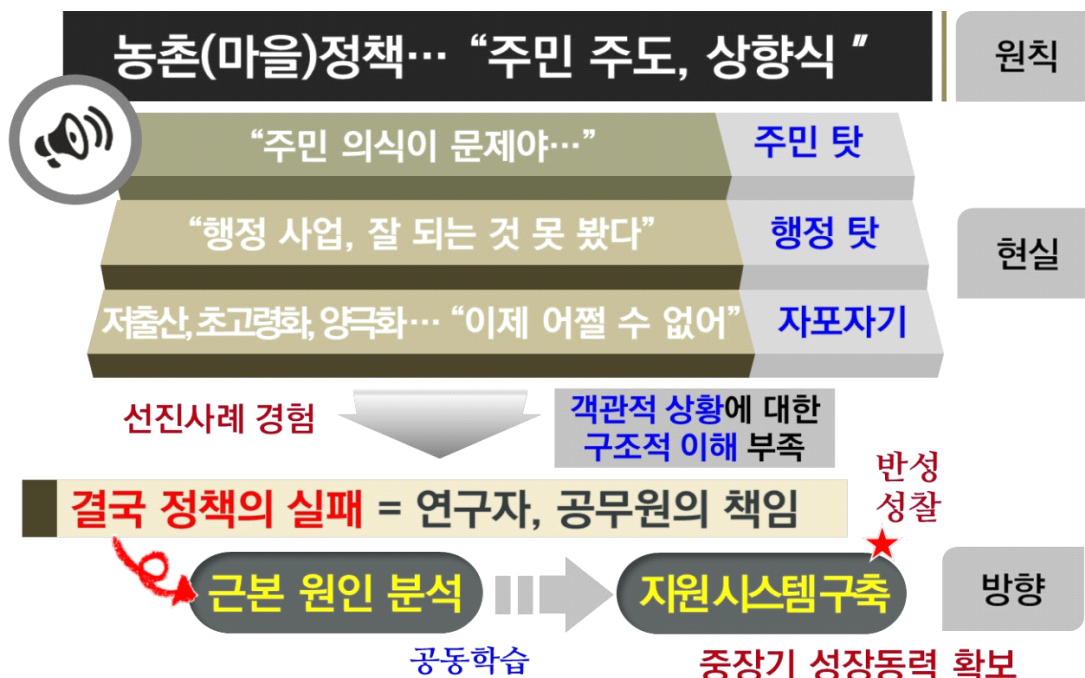
2019. 8. 30(금)

구자인(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

[반성] 우리는 희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 많은 경우는 정책의 실패, 전략의 실패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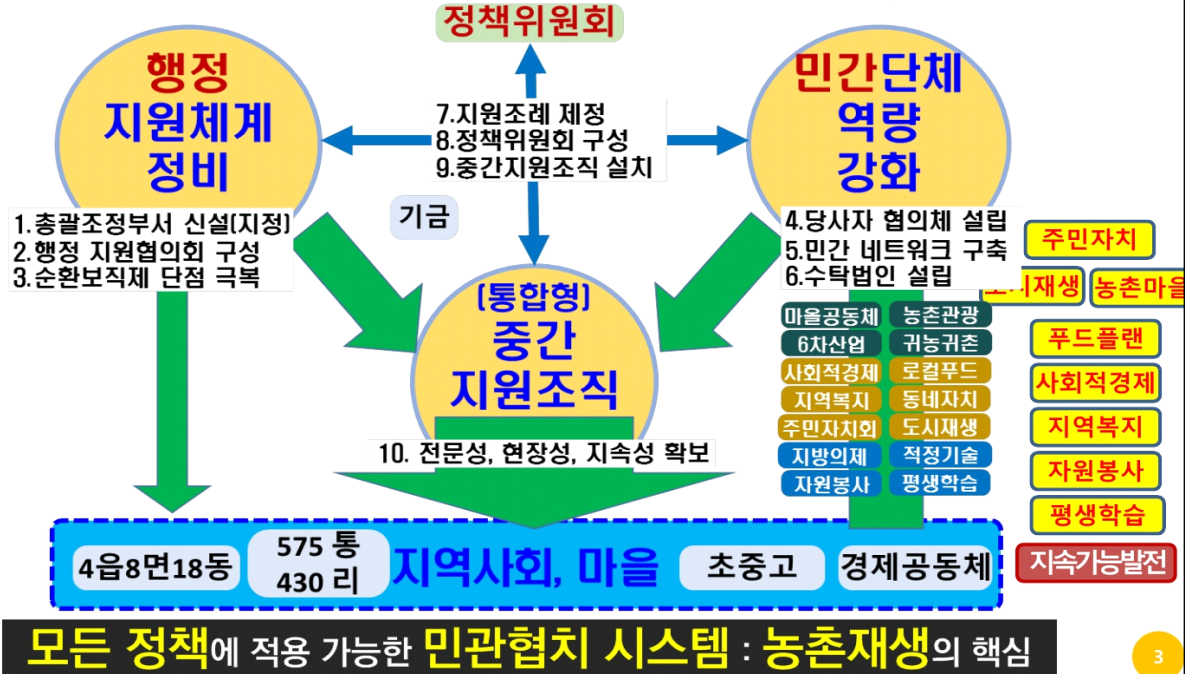


2

[목표]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 10대 핵심과제 해결
 → 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기본 개념]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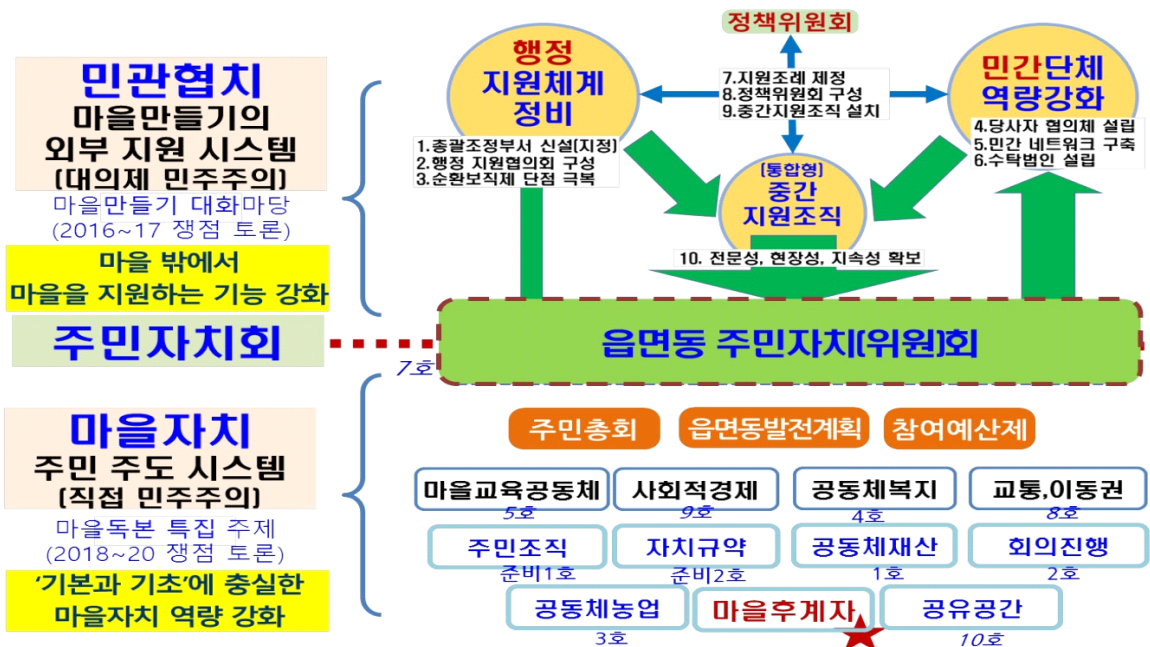
←중앙정부 정책 동향+ 선진 자치단체 사례 분석 결과



3

근본과제. **민관협치** 제도 기반이 취약하고, **주민자치** 역량도 부족하다.
 = 자치 역량의 **성장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발성 단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예시] 충남도 마을만들기의 민관협치와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 전략



4

→ **민관협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주민/마을자치 시스템**으로 확장

[종합] 농촌마을후계자 양성의 실천환경과 다양한 경로 “농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농촌 마을의 위기,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는 심각하고 원인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고 마을 후계자가 늘어날 것 같지 않다. ...
‘처방전’ 하나로 농촌 마을이 계속 유지될 상황이 아니다.
문제 원인이 복잡하기에 근본적 처방을 찾아야 하고 **종합세트 같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마을리더론을 넘어 실천 환경 조성으로

리더 개인의 노력이나 희생, 봉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적어도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마을리더나 활동가, 공무원, 전문가들은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을 후계자를 양성하려는 실천 환경을 농촌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5

마을후계자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환경 조성

첫째, 먹고사는 문제로 가장 중요한 **농업 문제**는 ‘지역농업’, ‘지역순환 경제’라는 관점이 강화되어야 한다. → **마을공동체농업**

둘째, 읍면 단위로 안정된 **공공일자리** 확보(혹은 제공)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살면서 자원봉사로 접근할 일과 전업專業적으로 풀어야 할 일은 구분해야 한다. → **사무와 시설 위탁**

셋째, 최근의 **자치분권** 흐름 속에서 자치단체 내부의 균형발전과 읍면 권한 확대, 이를 통한 민간의 책임성 강화 논의로 확대되어야 한다. → **‘읍면 발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제 확대’**

→ **농촌 마을 위기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

6

마을후계자 발굴과 양성의 다양한 경로(4대 유형)

→ 정책과 운동의 우선순위(私見), 하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역순

첫째, 마을 내부에서 발굴하고 양성하는 경로 →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개념을 읍면 단위로 확장하여 마을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읍면 소재지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여 '떠나지 않는 농촌,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상상해야 한다.

둘째, 고향 떠난 사람이 되돌아오게 하는 귀향의 경로 → U턴
'땅의 사람으로 되돌아온 바람의 사람', 혹은 '한때 바람의 사람으로 살았던 땅의 사람'
전국의 유명한 마을리더는 대개 도시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귀향인인 경우가 많다.
일본은 2002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100만 명의 고향회귀운동'을 전개

셋째, 직접 연고는 없지만 새롭게 오는 귀농귀촌 경로 → I턴, J턴
'땅의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의 사람' '농사짓지 않더라도 농사꾼이 할 수 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고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진 귀촌인' (진안군의 마을 간사나 완주군의 귀농귀촌 두레농장, 전라북도의 과소화대응인력, 경상북도의 도시청년 시골과전제, 홍성군의 마을조사단 등)

넷째, 일정 기간만 상주 혹은 도시에 살면서 왕복하는 경로 → O턴
'언젠가는'이라는 전제로 생각해볼 수 있고, 혹은 시대가 바뀌어 도시와 농촌을 왕복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인정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경로인 셈이다.
'교류인구', 고향사랑기부금법 논의 → '언젠가는' 마을 후계자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예비군

마을만들기 리더에게 바란다 : 관점, 자세, 당면과제

1. 마을리더 스스로 관점과 자세의 전환. 내 자식도 고향 마을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중에 도시에 나가더라도 선진문물을 배워 꼭 돌아오라"고 장학금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마을조직도와 마을규약 정비, '귀향귀농귀촌위원회' 설치
설명회, 빈집정비, 상담자 지정, 가공시설 일자리, 좋은 농지 제공. 이렇게 노력하는 마을이라면 당연히 서로 경쟁하여 들어오고 싶어 할 것이다.

3. 농지와 주택 거래는 마을회의에 먼저 알린다는 약속 실제 마을에 살 사람(후계자)에게 농지와 주택이 넘어가도록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유기농업 단지화도, 커뮤니티 센터 설치도, 노인요양원 건립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 설치 제안 농촌 마을의 공통 과제이기에 공동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읍면 정도의 규모이기에 '귀향귀농귀촌위원회' 설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5.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가 아이들에게 고향 마을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도와주면 '몸에 밴 유전자'가 언젠가 돌아올 힘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고향을 지키는 후계자로 성장해갈 수도 있다. (남원시 산내면, 옥천군 안남면, 제천시 덕산면, 완주군 고산면이 그렇다. 가까이서 홍성군 흥동면이 있고, 아산시 송악면)

6. '돌아오는 농촌' 을 위한 장학회와 공익법인 설립

7. 농촌마을 + 귀농귀촌 + 청년 등의 정책 협력 강화 요구

[참고] 전북 진안군의 연도별, 읍면별 인구 추이(1966~2015)

+2,5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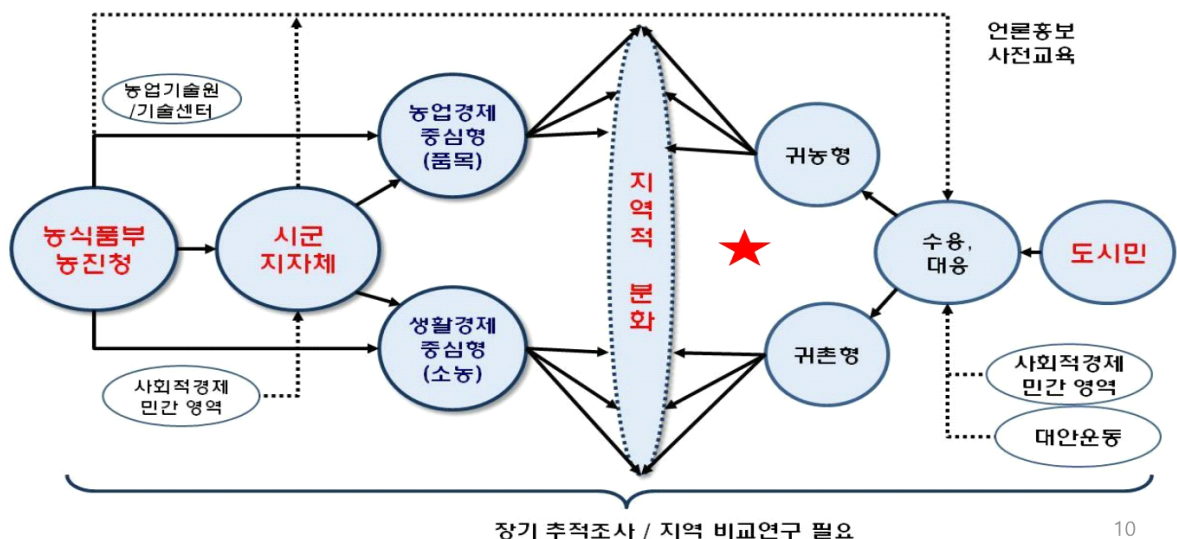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진안군	102,515	96,144	95,753	78,484	63,232	44,755	32,070	30,223	23,915	20,318	22,886
진안읍	-	17,642	19,303	16,745	15,913	12,577	10,677	11,774	9,415	8,435	9,261
용담면	-	7,213	6,966	5,531	4,341	3,269	2,061	1,052	798	696	755
안천면	-	5,983	5,904	4,933	3,981	2,767	1,758	1,247	1,018	896	976
동향면	-	6,789	6,607	5,264	4,348	2,960	1,821	1,764	1,479	1,295	1,369
상전면	-	7,785	6,529	5,267	4,801	3,235	2,333	1,174	785	555	752
백운면	-	8,673	8,248	6,679	4,952	3,058	2,123	2,257	1,966	1,550	1,787
성수면	-	8,235	8,342	6,939	4,897	3,424	2,150	2,329	1,803	1,437	1,570
마령면	-	9,164	9,431	7,731	4,981	3,308	2,319	2,497	1,877	1,509	1,704
부귀면	-	9,250	8,143	6,386	4,989	3,429	2,475	2,827	2,181	1,709	2,309
정천면	-	8,285	9,134	7,189	5,539	3,237	2,333	1,437	923	787	945
주천면	-	7,110	7,132	5,820	4,490	3,491	2,020	1,865	1,670	1,449	1,45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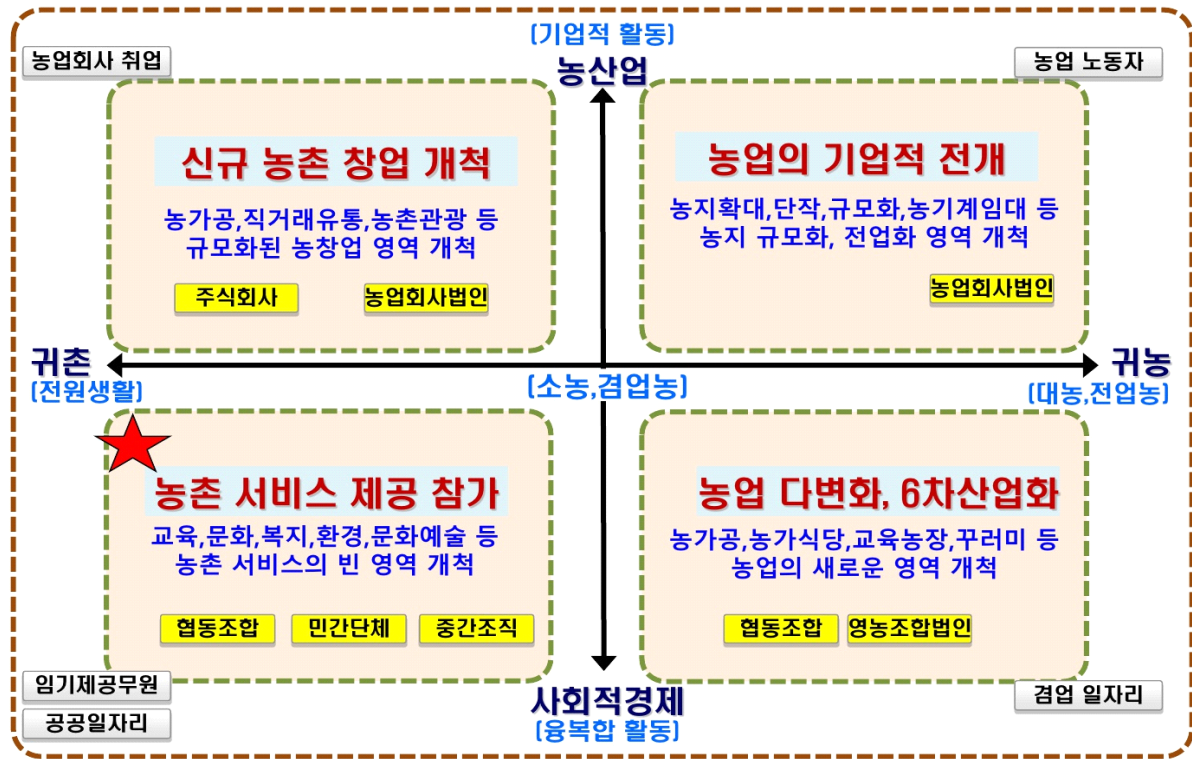
[참고] 귀농귀촌 대상지와 정책의 상호선택 : 사회적경제와 농촌재구조화

- 글로벌 시장경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중요성 대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 마을만들기, 로컬푸드, 6차산업화 등
-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과 귀농귀촌 정책의 수용태세 등에 따라 **지역별 분화 발생**
→ 지역농업 환경, 내부 인적 자원 개발, 민관협력 풍토 조성, 귀농귀촌인 역량 활용 방식 등
 - (1) 귀농(품목) 위주 농촌 활성화 정책 :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북도 고창군 등
 - (2) 귀촌(소농) 위주 농촌 활성화 정책 :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완주군 등



10

[참고] 귀농귀촌 정책과 일자리 연계 영역 _ 다양한 선택지



【1부】 주제발표

| 주제 발표② |

“귀농과 후계”

- 이진천 상임대표(전국귀농운동본부)

마을 후계자와 귀농·귀촌·귀향,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귀농과 후계, 3가지 변론

2019. 8. 30

6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錦山)

이 진 천

전국귀농운동본부 상임대표
강원도新농정기획단 민간연구원
前 춘천두레생협 이사장
前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1 -

마을 후계자와 귀농·귀촌·귀향,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귀농과 후계, 3가지 변론

“아! 우리 마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다음에 누가 이어가기는 할까?”

우리는 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가?

농촌 마을을 이어갈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해서일 것이다.
(사태가 그러하다면)

마을을	우리 마을에 사람은 왜 없는가?	농촌마을을 위한 변론
누가	우리 마을에 올 사람은 없는가?	귀농자를 위한 변론
이어갈 것인가	우리 마을은 어떤 꿈을 꾸는가?	후계자를 위한 변론

- 2 -

1. 우리 마을에 사람은 왜 없는가?

2018년 농가소득 평균 42,06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 (농업소득) 쌀값 안정, 가축질병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
- (이전소득) 직불금 단가 인상, 연금 수급액 증가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전년 대비 11.1% 증가
- (농업외소득)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등 농가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겸업소득 증가, 전년 대비 4.2% 증가
- (농가 자산 및 부채) 농축산업의 스마트화 등으로 농가 고정자산이 전년 대비 10.1% 증가
농가부채도 전년 대비 26.1% 증가



※ 2019년 5월 농식품부 발표자료

마침내 농가소득 4천만원을 돌파했고, 5천만원이 눈앞이라는데,
문제는 올해가 아니고, 농가소득도 아니다.

- 3 -

農의 좌절! 농업소득은 제자리, 농가인구는 감소

[농가소득] 2014~2018 (5년)

(단위 :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근 1년 증감률 (18년/17년)
농 가 소 득	34,950	37,215	37,197	38,239	42,066	10.0%
농 업 소 득	10,303	11,257	10,068	10,047	12,920	28.6%
농업외소득	14,799	14,939	15,252	16,269	16,952	4.2%
이 전 소 득	6,819	7,906	8,783	8,902	9,891	11.1%
비경상소득	3,029	3,114	3,095	3,022	2,302	-23.8%

[농가소득×농가인구] 1995~2018 (23년)

(단위 : 천원)

	1995년	2006년	2016년	2017년	2018년	12년간 증감률 (18년/06년)
농 가 소 득	21,803	32,303	37,197	38,239	42,066	30.2%
농 업 소 득	10,469	12,092	10,068	10,047	12,920	6.8%
농업외소득	6,931	10,037	15,252	16,269	16,952	68.9%
이 전 소 득	4,403	4,886	8,783	8,902	9,891	102.4%
비경상소득	-	5,289	3,095	3,022	2,302	-56.5%
농 가 인 구	485만	330만	249만	242만	231만	-30%

- 4 -

“우리 마을에 사람은 왜 없는가?” - 농촌마을을 위한 변론

- 1) 근대국가 체제에서, 농촌마을의 경제적 토대가 지속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농촌마을의 근간이 되는 ‘농사지어 먹고 사는 일’이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 정치·언론·연구자는 ‘농가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농촌마을민으로서 우리는 ‘농업소득’에 주목한다.
 - 2018년, 농가소득 4천2백만원, 농업소득 1천2백만원
 - 2006년, 농가소득 3천2백만원, 농업소득 1천2백만원 ⇨ 12년 전 농업소득과 동일
 - 1995년, 농가소득 2천1백만원, 농업소득 1천만원 ⇨ 23년 전 농업소득이 1천만원
 - ※ 당연한 이치로, 농가인구는 480만명에서 230만명으로 ⇨ 23년간 3집중 1집이 사라짐
- 3) ‘농사지어 먹고 사는 일’은 근대화·도시화·세계화의 과정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①무너지는 양상이 특이했고 ②소수 농민의 문제였으며 ③변방·지방의 사태였기에, 여기까지 왔다.
- 4) 농촌마을을 보며 농사 외에 다른 요소에 주목할 수 있다. 자연·문화·역사·공동체·교육·창업·일자리.....
그러나, **살림의 기반이자 존재의 기반인 농업이 무너지면, 다른 요소는 지키거나 세울 방법이 없다.**
이 근본적·결정적 문제를 간단하게 여기고, 문제와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만 찾는다? 그건 아니다.

사람이 왜 없는가? 떠난 사람 잘못도, 열심히 농사지는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왜? 문제는 경제에 있다! 농사지어 먹고사는 일을 비참하게 만드는 농촌마을경제!

- 5 -

2. 우리 마을에 올 사람은 없는가?

진실? 거짓?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 귀농·귀촌 거대한 흐름... 청년들 농업·농촌서 희망 찾아 ”

- 이○○ 총리는 “이제 귀농·귀촌은 거대한 흐름이 됐다.” 며,
“특히 청년들이 농업·농촌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총리는 ‘2019 K-FARM 귀농귀촌박람회’ 개막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50만명에 달하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왔는데,
그 절반이 2~30대 청년이었다.” 며 이같이 밝혔다.

▶ 농민신문 19.7.22 발췌



농업·농촌이 이처럼 활기차고 희망차다면, 저절로 마을이 채워질 텐데,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지, 우리는 왜 고민하고 있는가?

- 6 -

귀농·귀촌 미스터리 -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증발했나?

연도	구분	전체 가구수	2~30대 가구수	2~30대 청년 비중	귀촌 대비 귀농 %	2~30대 귀촌 대비 귀농 %
5년 평균	귀농	12,171	1,269	10.4%	3.8%	0.9%
	귀촌	320,349	141,240	44.1%		

▶ 2014~2018년 5년간 통계청 자료 분석 / 이진천

귀농·귀촌 히스테리 - 한해에 청년귀농 100명도 못 챙기겠나?

연도	구분	전국	강원도	충청남도	강원도 2~30대	충청남도 2~30대
5년 평균	귀농	12,171	1,006	1,304	81	127
	귀촌	320,349	21,543	34,451	9,696	15,901
	귀농/귀촌	3.8%	4.7%	3.8%	0.8%	0.8%

▶ 2014~2018년 5년간 통계청 자료 분석 / 이진천

- 7 -

“우리 마을에 올 사람은 없는가?” - 귀농자를 위한 변론

- 1) 귀농·귀촌 5년 평균, 연간 33만2천가구, 50여만명은 맞다. 그렇다면, 재앙에 가까운 숫자 아닌가?
- 2) 읍면지역 가구수 증가는 3년 평균 연간 9만 가구다. 그러면, 24만가구는 어디로 증발했나?
청년귀촌 14만 가구는 1인가구든 신혼가구든, 읍면지역 아파트 새로운 주민일 것이다.
적어도 귀촌 통계는 사실상, 농촌이 아니라, 도시의 확장을 의미할 뿐이다.
- 3) 실제 농촌마을 주민으로, 농민들과 함께 아파하며 사는 귀촌자들은 극소수다. 귀한 사람들이다.
- 4) 귀농·귀촌 중에 귀농은 3.8%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꺼번에 귀농·귀촌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 5) 전국적으로 청년귀농 연간 1천2백가구. 이 얼마나 고마운 젊은이들인가?
- 6) 충남으로 귀농한 청년은 연간 127가구, 가구원 합쳐 200여명 남짓. 이 얼마나 귀한 젊은이들인가?
※ 강원도로 귀농한 청년은 연간 81가구, 가구원 합쳐 150여명에 불과. 이 얼마나 눈물겨운 젊은이들인가?

귀농이든 귀촌이든 귀향이든, 마을주민으로 어울려 사는 것과는 별개로,
무의미한 귀농·귀촌 통계는 농정·지역정책에 혼선을 일으키고, 정치에 악용될 뿐이다.
농업을 향하려는 소수의 귀농자, 극소수의 청년귀농은 마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귀농은, 흔해 빠진 일도, 거대한 흐름도 아니다! 드물고 귀하다!

- 8 -

[중간 정리]

우리 마을에는 왜 사람이 없을까요?

네, 그것은 세계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일지도 몰라요. 다른 요인도 많겠지요.
하지만, 농민이 농사지어 먹고사는 일을 가로막은, 수십년의 퇴행이 근본 요인이지요.
무엇을 붙잡든, 무슨 시도를 하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갔으면 해요.

우리 마을에 올 사람은 없을까요?

네, 한해 수십만이 귀농하고 귀촌한다고 해요. 귀향도 많지요.
하지만, 사실은 남루한 농촌마을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더군요.
어렵고 위태로운 농사를 해보겠다는 사람은 정말 너무도 드물어요. 절대 흔한 게 아니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마을이 꼭 안고 품어주셨으면 해요. 나아가 충남이 대한민국이요.

**정치적이고 부정확한, 희망 타령을 배격하고,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며, 사람을 귀하게 대한다면!**

- 9 -

3. 우리 마을은 어떤 꿈을 꾸는가?

후계자 後繼者

어떤 일이나 사람의 뒤를 잇는 사람

온고지신 溫故知新

옛것을 미루어 새로움으로 나아감



* 한국의 농정 패러다임 변화 흐름

반성 없이 패러다임 변화는 없다. 그러면, 농촌마을은? 반성하며 꿈꾸는가?

- 10 -

Let it be. 마을은 마을이다. 평범한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산다.
Let it go. 그러나 후계는, 과거를 이어 새로움을 향해 간다.

귀농은 무엇의 후계인가? 모름지기 후계라면,
진선미(眞善美)라는 감각에 근거한, 가치 충만한 것들의 후계여야 한다.

.....

귀농은 후계다. 앞선 農의 뒤를 잘 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앞의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잇는 일도 비정상인 된다.
간단히 말해 앞의 일이 이어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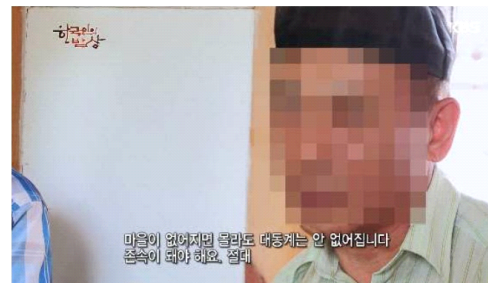
.....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도시적 무지에서 나올 수도 있다.
반면에 농촌적 무감각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어떤 것도 명쾌하지는 않다. 그렇게 밀고 당기면서, 꺾고 꺾이면서,
온전한 마을살이로 나아갈 뿐이다.

- 마을독본 6호 이진천 -

- 11 -

어느 농촌마을 450년 전통, 대동계 풍경



- 12 -

2천5백년 전, 소박하며 위대한 꿈

大同 - 공자의 '대동'



큰 도(道)가 행해졌을 때는 천하가 공공(公共)의 것이었다.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뽑아,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게 하니
사람들은 그 부모만을 부모라 여기지 않았고, 그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는 편안하게 일생을 마쳤으며, 젊은이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었으며,
어린이는 잘 자랄 수 있었으며, 과부 홀아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봉양했다.
남자는 적절한 일이 있었고, 여자는 시집갈 자리가 있었으며,
재물을 낭비하는 일을 미워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쌓아 두지 않았다.
몸을 움직여 일하지 않는 것을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에 간사한 꾀가 막혀서 일어날 수 없었고,
도적이 훔치거나 난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바깥문을 닫을 까닭이 없었으니
이를 일러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修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

- 13 -

2천5백년 전, 소박하며 위대한 꿈

小國寡民 - 노자의 '소국과민'



나라는 작고 사람은 적다.
편리한 기구가 있다 해도 매이기 싫어 굳이 쓰지 않고,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기에,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고 갈 곳이 없으며, 무기가 있어도 쓸 곳 없이 평화롭다.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단순함으로 돌아가, 글자 대신 노끈을 매어 소통하고,
자신들이 먹는 것을 달게 여기고, 자신들이 입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자신들의 삶을 편안히 여기고, 자신들의 관습을 즐겁게 여긴다.
이웃나라가 가까워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지만,
사람들은 늙어 죽도록 서로 왕래할 일이 없다.

小國寡民，使有什佰之器而不用，使民重死而不遠徙。雖有舟輿 無所乘之，雖有甲兵 無所陳之，使人復結繩而用之。甘其食 美其服 安其居 樂其俗，隣國相望雞犬之聲相聞，民至老死不相往來。

- 14 -

“우리 마을은 어떤 꿈을 꾸는가?” - 후계자를 위한 변론

1) 꿈, 비전(vision). 우리 농촌마을은 다함께,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중인가? 그냥 흘러가는가?

눈을 밟으며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네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니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 ‘野雪’ 이양연(1771~1853)

2) 기존 사람들은, 가치 있는 무엇을 이어가게 할지를 성찰해야 한다. 과거가 모두 아름답지는 않다.

3) 새로운 사람들은, 겸허히 온고(溫故)하며 성찰해야 한다. 새것이 모두 능사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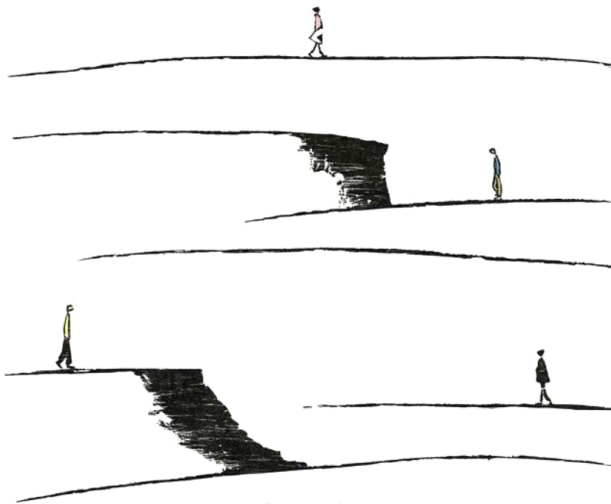
참된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한다.

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 - 논어

4) 희망? 알 도리가 없다. 전망? 말할 도리가 없다.

같이 꿈꾸며, 봄날 꿈꾸듯, 옛 사람이 낸 마을길을, 걷고 또 걸을 뿐이다.

- 15 -



길잃어도 걷고
길잃어도 걷고
길잃어도 걷는다
우리들의 길
이철수 2014

* 이철수 선생 판화 www.mokpan.com

농촌마을을 힘겹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촌마을을 애써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시고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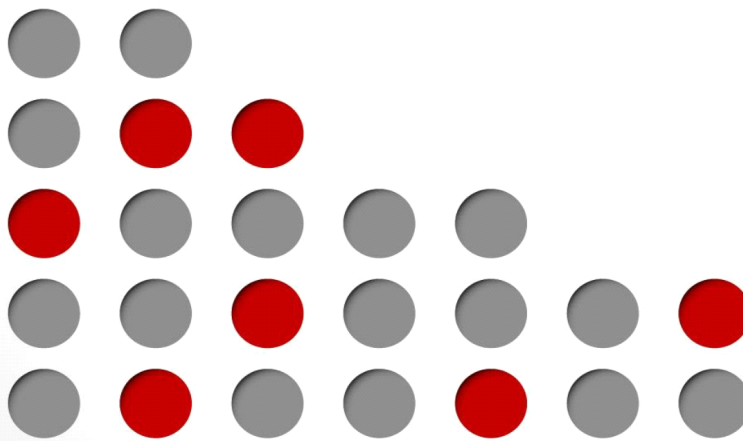
【2부】 사례발표

I 사례 발표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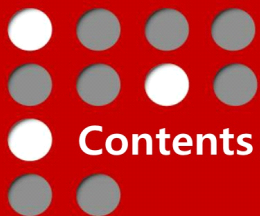
“귀농 · 귀촌 마을살이, 나는 마을 후계자인가?”

— 조용준 대표(조이딸기농장, 금산군 귀농4년차)

마을 후계자와 귀농,귀향,귀촌 -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조이딸기



Contents

- 01/ 현황
- 02/ 개요
- 03/ 농업의 유통구조
- 04/ 조이딸기 이야기

...

현황

3

가게명	조이딸기
대표이사	조 용 준
본사주소	충남 금산군 남이면 금산로 990
설립일자	2016년 7월
농장주소	충남 금산군 남이면 금산로 990
사업종목	딸기재배 & 가공판매

현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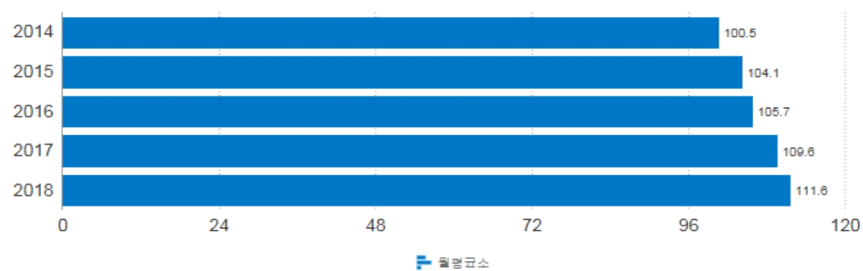


현재의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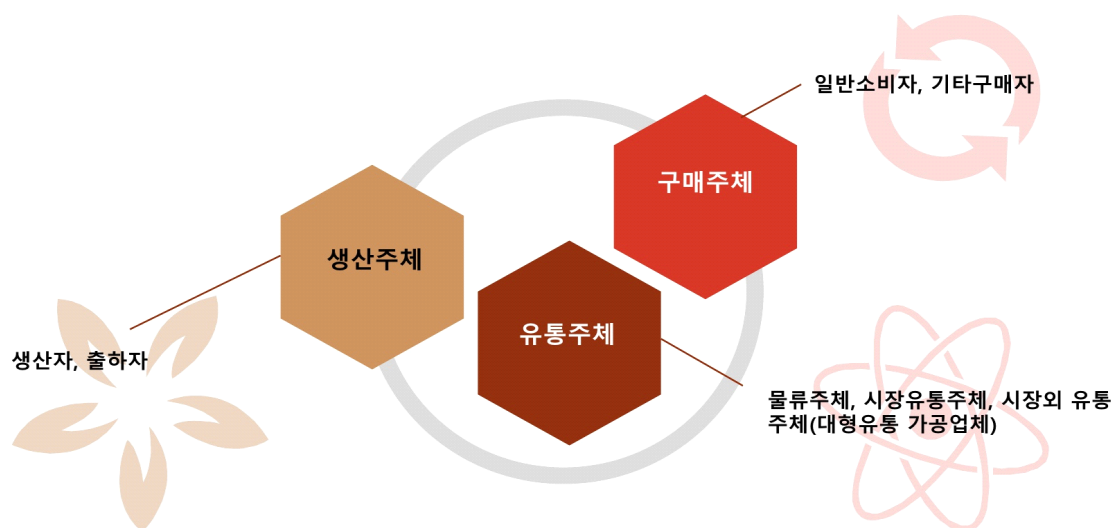
- 급변하는 산업사회 속에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
- 농업소득보다 농업외 소득의 비중이 높다
-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생산물의 직접판매가 어렵고 가격 결정권이 없다

[2019 농촌경제] 농업인 신고 월평균소득

[출처 : 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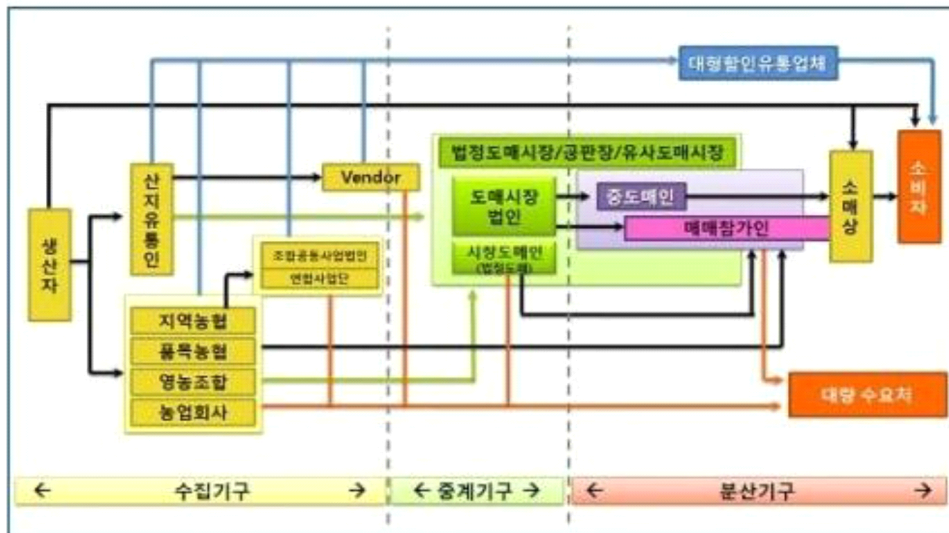


농업의 유통구조



농업의 유통구조

7



조이딸기 이야기

8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조이딸기 이야기

9

농장내 딸기판매장



조이딸기 이야기

10

고품질 딸기생산



가공& 판매



THANK YOU!

조이딸기

조 용 준

【3부】 종합토론

| 종합 토론 |

“마을 후계자 : 누가 마을을 이어갈 것인가”

- 진행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지정토론자 : 권용안 회장(금산군 귀농귀촌협의회)
- 전창호 전(前) 이장(금산군 남이면 역평1리)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관계

금산군 남일면 역평1리 전창호 前 이장

우리 부락에는 귀농귀촌하신 가구가 18가구 왔습니다.

그 중에는 10가구는 제가 땅을 소개해주고 본인들이 마음 맞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부락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자주 만나고 그분들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마을 이장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귀농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살펴보니 부락민과 잘 지내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귀농인이 많아도 농사에 대해서는 먼저 짓고 있는 선배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으니 세상 살아가는 것도 선배요, 그래서 부락민 만나면 인사 잘 하고 아는 것도 자주 물어보고 친근감 있게 하고 하여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타관 벽이 없어지고, 가까워져서 오히려 기존 부락민 가까워지면서 잘 지내게 되고 타관 벽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부락은 부락민이 거의 노령이시라 노인회에 가입되었고, 노인회 가입 하지 않은 농가는 몇 집 안 됩니다.

그리고 귀농 한 사람들이 노인회, 부녀회에 가입하여 부녀회장, 노인회 사무장직을 맡아주어서 내 일 같이 생각 하며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부락민과 가까워지고 자주 만나서 의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친근감이 기존 부락민 보다 더욱 잘 지내게 되더군요.

단, 요즘에는 귀농인 들이 처음 왔을 때보다 농사를 지어보니 생각보다 미치지 못할 때 회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관에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좋은 교수 분들을 초청 하여 귀농인들에게 좋은 소리 들려주고,

면장 그리고 직원들도 귀농인이 부탁을 하면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일을 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토론문

금산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권용안

1. 빈집은 많은데 귀농인의 집은 어디에?
2. 이장님은 소통령
3. 한 번 서울댁은 영원한 서울댁
4. 내가 서있는 위치는?
5. 지키려는 자와 살고 싶은자
6. 생각의 차이
7.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8. 5년 뒤 귀농인은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
9.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메 모 장

[illegible]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메 모 장

[illegible]